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민주화운동이 30돌을 맞았다.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아시아와 인권 탄압에 신음하는 세계 국가들의 이상으로 꼽는다.

1980년 광주 하늘에 울려 퍼졌던 핏빛 함성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거쳐 이제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추앙받고 있다.

5·18은 일상 중 활동과 기운이 가장 왕성한 장년을 맞았다.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서른(而立)을 맞은 5·18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5·18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심층기획 시리즈 '5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를 연재한다.

1 프롤로그

우리는 5·18이 자랑스럽다. 5·18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몸짓이었기 때문이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역사 속에 민주, 인권, 평화라는 담론의 중심에 서 있다.

있다. 우리는 5·18이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산 경합으로 기억되고, 후대에 전수되기를 바란다. 학생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매개체였다. 5·18은 중요시기마다 살아 움직이며 제 역할을 다해왔다. 이제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이다. 지난 한 세대를 되돌아보고, 시대와 현실에 맞는 새로운 5·18의 의미를 재발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에서
젊은 인권운동의 상징·민주성지로

그렇다면 5·18은 끝났는가? 언제부터인가 5·18을 과거의 역사로, 이제는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역사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 혹자는 더 이상 5·18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더러 5·18하면 이전 지긋지긋하다고 막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5·18이 살아서 아니라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해서라는 것을, 매년 5월만 되면 자책하면서도 우리끼리의 반박과 대립을 거듭해 광주를 부끄럽게 한 죄를 아는 탓이다.

5·18은 그 어떤 민주화운동과도 차별된다. 학생발발 20여년 만에 국가폭력과 그 주변에 대해 법적 단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자체가 명예회복과 아울러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 같이 짧은(?) 기간에 민중항쟁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사례는 국내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유일무이하다.

5·18이 내부적으로는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항쟁정신 자체가 결핵될 수는

해야 한다.

1980년 5·18 발발 이후, 십 수년 동안 광주는 민주 세력에게 신군부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동력을 제공해왔다.

정부는 5·18을 광주사태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했으나 거센 민주화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7년여에 걸친 무수한 희생은 급기야 1987년 '6월항쟁'을 불러왔다. 이후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 광주 사태라는 정부의 시각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바뀌었다. 특히 1989년 김영삼 정권에 와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러 국민적 운동으로 인해 1997년 5·18특별법이 제정됐고, 학살책임을 물어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뤄졌으며, 5·18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또 항쟁 희생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됐으며, 그들이 묻힌 자리는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세계 민주·인권의 등대로 빛 발하라



특별취재팀

채희중 사회1부 차장
최경호 사회1부 기자
오광택 문화생활부 기자
이중형 사회1부 기자
김형호 사회1부 기자
최현배 사진부 기자



견제하는 있었지만 그동안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다수의 사체에 비취보면 5·18은 법치·행정적 보상은 물론 명예회복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5·18의 명예회복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 이 같이 눈부신 역사적 진화때문에 5·18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델로

진 5·18정신을 실현하는 이들도 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생활 속에서 5월 정신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보다 더 5·18을 사랑하는 외국인들도 있다.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광주 5·18을 이상(理想)과 희망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억압받는 자국의 국민을 살리고, 탄압받는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광주정신을 전파하는 해외연도사들, 그들은 또 다른 광주시민이다.

5월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아니 내일도, 영원한 우리의 의무이자 숙제다.

5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자기 성찰이 절실하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재권도 아니고 재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 1994년 광주시민과 항쟁의 직접 당사자들이 모여 설립한 5·18기념재단 참립선언문의 일부다.

5·18은 광주 넘어 세계의 자산
올곧은 정신 계승 함께 나설 때

여겨지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1986년 필리핀의 2월 혁명과 1992년 태국의 5월 혁명 등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민주화 및 인권 운동을 벌이는 아시아 각국에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인권운동의 상징이라는 역사적 평가와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 보다는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는 항쟁의 피해자들도 기억해야 할 때이다.

항쟁에서 살아남아 30년이 다한 지금, 오히려 "그날 숨졌으면 편했을 것"이라며 아픈 상처를 안고 사는 피해자들도 있다. 그들의 죽음과 피 값으로 광주가, 오늘의 민주주의가 바로 있음을 기억하는 한 그들의 정신은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인권·평화로 이어

16년 전의 자기 반성이자 각오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더더욱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5·18의 역사와 인류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한층 필요하다. 항쟁 피해자들도 당시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더라도 이제 민주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품위를 세워야 할 때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5·18을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인권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활동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의 함성과 기상이 오늘날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가 5·18을 지켜냈지만 이제 5·18이 광주를 지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특별취재팀)

◀ 서른개의 태양아래 잠든 오월 영령

저항과 투쟁에서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이르기까지 영육(榮辱)의 30년 역사를 간직한 5·18이 서른 해를 맞았다. 나쁜 D37카메라로 감도 50, 조리개 22, 셔터스피드 8천분의 1로 떠오르는 해를 30개(15분 간격) 촬영해 합성했다. /최현배기자 cho@kwangju.co.kr

